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동서리서치
연구원 남 현 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 선 화

Dong Seo Research
Researcher : Nam, Hyun Mi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Ok, Sun Wha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Data were collected from 520 senior students of middle school(266 boys and 254 girls) who reside in Incheon.

The level of problem behaviors was directly influenced positively by closeness with friends and negatively by self-control and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s. And the level of problem behaviors was indirectly influenced positively by intrafamily conflicts and negatively by self-control, parental monitoring and op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control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problem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 이 논문은 1999년도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이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Self-control was directly influenced positively by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negatively by intrafamily conflicts. Closeness with friends was directly influenced positively by parental monitoring and negatively by self-control and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s.

주제어(Key Words):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가족의 심리적 환경(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자기통제력(self-control), 친구 특성(friends characteristics)

I. 문제 제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개인의 발달단계에 있어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과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은 흔히 청소년기동안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며, 또한 문제행동 자체가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요인적 접근(유혜경, 1986)이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성격, 신체특성과 같은 청소년의 개인특성(김두섭, 민수홍, 1996; 원호택, 1991), 가족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가족 특성(고성혜, 1994; 김준호, 김순형, 1995; 박성수, 1991; 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Farrell, 1992; Snyder & Patterson, 1987), 학교성적 및 적응 등의 학교관련 특성(김동일, 1993; 김준호, 노성호, 1993), 친구집단 성향과 이성교제 여부와 같은 친구관련 특성(민수홍, 1996; 오미경, 1998; 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Farrell, 1992; Pruitt & Kingery, 1991)과 사회구조적 환경(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등 여러 원인으로 문제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을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속해있는 가족에 있고,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가족임이 지적되고 있다(김준호, 199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이와 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부부관계나 가족체계 문제 등 총체적인 가족의 문제(정유미, 김득성, 1998; 최규련, 1996)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 적응의 문제를 가족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양친부모를 가진 중류층 가정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범죄백서, 1995; 지광준, 1992), 결손가족이나 저소득같은 가족의 물리적 환경의 부족보다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의 결손여부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준호, 김순형, 1995; 노성호, 1992; 민수홍, 1996; Barnes & Farrell, 1993).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의 직접효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벼운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가족간 불화를 경험하지 않고, 부모의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문제행동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등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의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친구관련 특성이다.

친구지향성이나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성향 등 친구관련 특성이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김준호, 김은경, 1995; 오미경, 1998; Pruitt & Kingery, 1991)에서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친구관련 특성들이 많은 부분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관련된다는 것도 여러 연구(김두섭, 민수홍, 1996; 김준호, 김은경, 1995; 전병재, 1991)에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친구 관련 특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요인으로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수가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개인특성 변수로 공격성, 충동성, 자아존중감(원호택, 1991; 민수홍, 1996), 자기통제력(김두섭, 민수홍, 1996; 김현숙, 1998; Gottfredson & Hirschi, 1990)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자기통제력이었으며(김두섭, 민수홍, 1996), 이러한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으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적응과 행동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남성, 1995).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부모의 감독 정도, 가족의 불화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밝히고,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나 친구지향성,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를 통한 간접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력이나 친구지향성,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통제력이 친구관련 특성을 통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친구관련 특성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들간의 관계와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청소년기동안 개인 및 가족의 적응을 위해 바람직한 가족관계와 기능을 제시하여, 청소년 자녀기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가족생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1.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문제행동은 어떤 개인이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말한다(정유미, 김득성, 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방법은 학문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청소년에 의한 법률 및 사회규범 위반행위로 정의내리는데는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특정행위를 문제행동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판단기준은 사회규범이나 법이었는데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거의 없다(민하영, 1991; 오미경, 1997).

청소년 문제행동에는 법률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경범한 행위 및 장래 형벌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비행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경범한 행위란 그 자체로서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흡연, 음주, 흥기소지, 부녀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노성호, 1992). 이같은 행위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에서 간과될 수 없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불량행위들이 이후 형벌법령위반의 전조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민하영, 1991).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청소년이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신분으로서 해서는 안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경험한 문제행동 즉, 흡연, 음주, 미성년자 출입 금지구역 출입, 무단조퇴와 무단결석, 귀가시간 어기기, 허락없이 외박하기 등을 다룬다. 이러한 행동들은 행위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으로 규정되는 것이지만 이후에 보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으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인 행동들이며, 또다른 문제행동에 노출되기 쉽다는 개연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문제행동을 다루는 연구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족과정 및 상호작용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에서 가족은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 환경으로 나타난다(Barber, 1992; Gecas & Seff, 1990).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모든 발달시기에서 한 개인의 역기능적 행동과 정서는 단순히 그 개인의 내적인 병리 때문이라기 보다는 부적절한 인간관계 혹은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체계론적 시각이다. 즉, 병리의 소재지가 개인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 속에서의 개인이며,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맥락은 가족(박선영, 도현심, 1998)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체계론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환경요인에 중점을 두어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는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에서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강할수록 개인의 행동이 순응하도록 통제되어지고, 반면에 유대가 약하거나 손상될 때 범죄나 비행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사회유대 요인들 중에서 애착은 개인이 부모, 친구와 같은 의미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전시키는 애정과 존경을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관련된 개념으로 선행연구들(고성혜, 1994; 김두섭, 민수홍, 1996; 표갑수, 1986)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는 부모와의 애착에서 시작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자녀관계의 깊이와 질이므로,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살펴보고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환경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관련 특성이다. 이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여러 연구(김두섭, 민수홍, 1996; 오미경, 1998; 전병재, 1991; 정유미, 김득성, 1998)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와의 접촉이 실제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결과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와 강력하게 오랜 기간동안 접촉할수록 문제행동에 대한 가치도 변하고 문제행동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사람이 어떤 비행문화 또는 비행적 하위문화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접촉하여 그 문화와 동일시되면 그와 동일한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는 차별적 접촉이론(Sutherland & Cressey, 1978)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차별적 접촉이론은 특정인이 문제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문제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며, 주된 학습의 기회는 가족, 친구집단과 같은 친밀한 개별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며, 학습되는 내용은 문제행동에 필요한 기술, 동기, 추진력, 합리화 및 태도 등이다. 덧붙여 Glaser(1956)는 어떤 비행적 행위양식과 접촉하는 것만으로 문제행동이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실제 또는 관념상의 인물의 조망에 비추어 자기의 행위가 수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범위 내에서 문제행동을 한다는 차별적 동일화론을 제안하였다(표갑수, 1986).

2.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관련연구 고찰

1)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과 청소년 문제행동

최근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문제행동을 총체적인 가족의 문제(최규련, 1996)로 보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연구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김준호, 1993; 김혜래, 1985; 오미경, 1997)은 가족의 환경특성 중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가족의 물리적, 구조적 환경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구순주, 최보가, 1996; 김두섭, 민수홍, 1996; 김준호, 김순형, 1995; 노성호, 1992; 민하영, 1991; 오미경, 1998; Barnes, Farrell, & Cairns, 1986; Robertson & Simons, 1989)에서 가족원간의 화합도,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등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실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개 물리적 환경특성만의 영향이기보다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가족내 상호작용에 문제가 초래되어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 부모의 감독 정도, 가족의 불화 정도 등이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역할조망과 자아정체감 형성, 도덕성 발달,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이유 등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권혜진, 윤중희, 1992; 김순옥, 1995; 민하영, 1991; 박영애, 정옥분, 1996; 이경주, 신효식, 1997; Barnes & Farrell, 1993; Robertson & Simons, 1989)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민하영, 1991 : 11-12).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가족안에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내재한다(김준호, 김순형, 1995; 김준호, 김은경, 1995; 민수홍, 1996; 민하영, 1991; Snyder & Patterson, 1987).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교육에 지장을 주고 부모자녀간 갈등을 일으키며, 이로 인한 욕구불만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다른 여러 제반환경과 결합하여 문제행동을 촉진시킨다(정유미, 김득성, 1998).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김두섭, 민수홍, 1996; 박성수, 1991; Barnes & Farrell, 1992; Gecas & Seff, 1990)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부모의 감독이란 '자녀의 행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로, 자녀가 있는 곳, 하는 일,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은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초·중기에 걸쳐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Patterson, Reid, & Dishion, 1992). 청소년기에 이르면 아이들은 보다 폭넓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부모의 영

향권 밖에서의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하는 감독자로서의 부모역할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Wilson(198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적절한 감독은 주위환경의 영향을 완충시키며 위협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불화가 잦고 가정내 갈등과 충돌이 많을수록, 가족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고 가족간에 화합이 안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준호, 김순형, 1995; 김준호, 김은경, 1995; 민수홍, 1996; 박금희, 1986; 정유미, 김득성, 1998; Shagle & Barber, 1993)에서 일관성있게 보고되고 있다. 박금희(1986)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관계 질이 바람직한 수준일수록, 가족체계의 위계질서와 하위체계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가족체계가 균형을 이룬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불화는 가족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자녀의 성격 및 정서발달에 장애요인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수준을 높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문제행동

동일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문제행동을 하는 것에 개인차가 나타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김두섭, 민수홍, 1996; 김지은, 1998; 김현숙, 1998; 민수홍, 1996; 원호택, 1991; Gottfredson & Hirschi, 1990)에서는 성격, 유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을 다루어왔다. 이 중 자기통제력은 '사람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범죄적 행위를 회피하는 차등적 경향'이라고 정의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능력의 미숙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Mischel, Shoda, & Peake, 1988; 김현숙, 1998 재인용), 또한 이러한 성향은 충동적인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두섭, 민수홍, 1996). 즉,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범죄나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친구관련 특성과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기는 가족외적인 관계를 많이 맺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인데, 이러한 가족외적인 관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친구관계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도 친구집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실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룬 많은 연구(김준호, 김은경, 1995; 김지은, 1998; 민수홍, 1996; 오미경, 1998; 정유미, 김득성, 1998)에서 문제행동에 가장 실제적이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성향 등의 친구관련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주변에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친구의 수가 많고 그들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며, 교우관계가 건전하고 비행 성향의 친구들이 적을수록 문제행동이 적다는 것이 일관성있게 보고되고 있다(김동일, 1993; 오미경, 1998; 정유미·김득성, 1998).

한편 친구지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여러 연구들(김동일, 1993; 김준호, 김은경, 1995; 오미경, 1998; 전병재, 1991; Pruitt & Kingery, 1991)에서 지지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향의 친구와 사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런 친구들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비행성향을 가진 친구들과 자주 접할수록 그들의 가치와 사고방식, 행동유형을 내면화시키고 문제행동 관련기술을 배우게 되지만, 이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학습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스스로가 그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생각하고 가치를 긍정적으로 내면화해야만 동일행동에 가담하고 반복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행동을 유발시킨다기 보다는 그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가치관이나 행동방식을 내면화하게 될 경우 자신도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될 기회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4)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기통제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주로 부모의 자녀양육 방법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생의 초기단계에 성립된 자기통제력의 개인차는 그 이후 평생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기통제력이 인생의 초기단계에만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몇몇 선행연구(김두섭, 민수홍, 1996)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자기통제력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가 아이의 충동적 반응에 대해 신중하고 일관성있게 양육할 때 아이의 자기통제력이 강화된다.

민수홍(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형태나 모의 취업여부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활발할 때 부모가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개발시키기에 용이하고 높은 수준의 감독이 가능하므로 자녀의 문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섭과 민수홍(1996)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에 다툼이 있거나 자녀 훈계시 난폭한 언행을 사용하는 부모의 경우, 혹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는 자기통제력을 개발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간 불화가 많고, 부모의 감독 정도가 낮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기통제력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5)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친구관련 특성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통제를 피하거나 쉽고 즉각적인 쾌락을 얻고자 차별적으로 시간과 장소 및 만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은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위험한 시간과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민수홍, 1996). 이런 경향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다보면 자신과 행동양식이 같거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 쉽다(박성수, 1991; 오미경, 1998; Snyder & Patterson, 1987). 또한 자기통제력이 약한 경우에는 충동적이고 문제행동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며, 인지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좌절이나 실패를 보상받기 위해, 또는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문제에 가담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김지은, 1998; 민수홍, 1996; 박성수, 1991; 전병재, 1991). 결과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 지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과 친구관련 특성

가족 내에서 부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가족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가족들은 청소년기동안 더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박성수, 1991). 대체로 가족체계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을 때 청소년 자녀들은 가족원간에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청소년 자녀들을 친구집단과의 관계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일반적인 결론이다(최규련, 1996).

이러한 부정적인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수준은 높아진다(박선영, 도현심, 1998; 최선남, 최외선, 1995; 최외선, 백양희, 이미옥, 1997; Robertson & Simons, 1989). 그런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보다 집착하고 친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친구들의 유혹이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음주나 흡연, 외박이나 가출, 무단결석 등을 경험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김준호, 김은경, 1995; 전병재, 1991).

또한 부모의 감독이 부적절하거나 부모의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태도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나 다른 가족원들로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 혹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위압적이며 폐쇄적일 경우에 자녀들은 자신의 생활을 부모에게 숨기게 되고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박성수, 1991). 이런 친구관계를 통해 확실한 자기주관이 생기기도 전에 친

구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보다 쉽게 문제행동에 접하고 반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7)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 자기통제력 및 친구관련 특성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동조행위가 증가되어가는 동시에, 가족 또한 자녀의 발달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이경주, 신효식, 1997). 따라서 청소년기를 다룸에 있어 가족과 친구 집단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집단과의 동조성에 대한 압력은 개인에 따라 달리 작용하여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고 독립성을 성취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친구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다(오익수, 박경애, 황순길, 1993). 이처럼 가족의 심리적 환경은 청소년기의 인지정서적 발달, 친구관계 및 부적응에 큰 영향을 준다(최규련, 1996).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부모의 감독 정도, 가족의 불화 정도 등 가족의 심리적 환경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친구지향성이나 친구집단의 성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으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강한 연대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외적인 인간관계,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집단과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이들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상호심리적인 지지 및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존집단에 대한 반항의 형태로 문제행동에 가담(윤덕중, 1989)하기도 한다.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관련 특성을 다룬 관련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가족의 불화 정도가 높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보다 집착하게 되고, 음주나 흡연 혹은 외박이나 가출, 무단결석 등을 경험한 친구의 가치나 행동에 동조하도록 더 큰 압력을 받게 되어 그러한 문제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의 감독 정도, 가족의 불화 정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친구관련 특성(친구지향성,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는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친구관련 특성의 직접적 영향력과 간접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가설 1.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친구관련 특성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는 낮을 것이며, 자기통제력이 높고, 친구지향성이나 문제행동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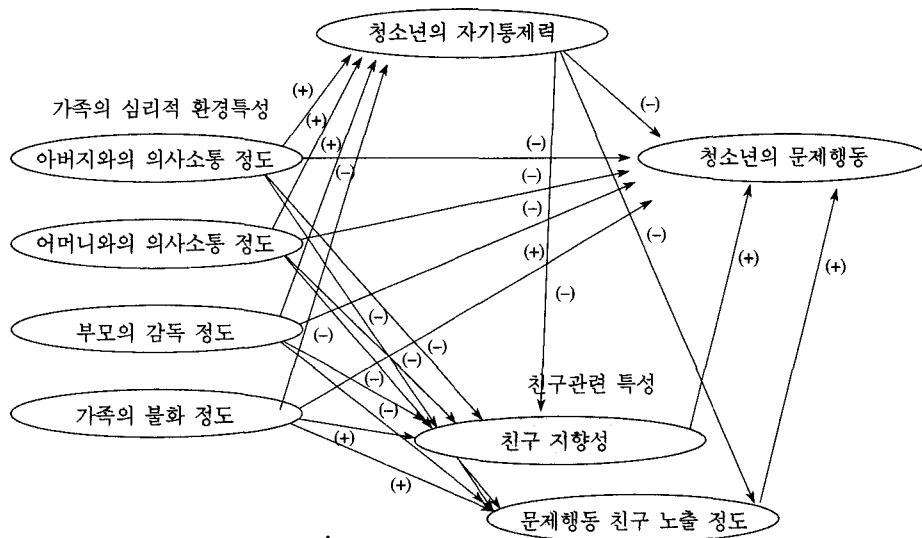
노출 정도는 낮아져, 문제행동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1-2.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는 낮을 것이며, 자기통제력이 높고, 친구지향성이나 문제행동 친구노출 정도는 낮아져, 문제행동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1-3. 부모의 감독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는 낮을 것이며, 자기통제력이 높고, 친구지향성이나 문제행동 친구노출 정도는 낮아져, 문제행동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1-4. 가족의 불화 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는 낮을 것이며, 자기통제력이 높고, 친구지향성이나 문제행동 친구노출 정도는 낮아져, 문제행동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친구관련 특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2-1.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정도는 낮을 것이며, 친구지향성이 낮아져, 문제행동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2-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정도는 낮을 것이며,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가 낮아져, 문제행동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청소년의 친구관련 특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친구지향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3-2. 문제행동 친구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모형

가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이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총 40문항으로 부와 자녀, 모와 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 정도와 문제성 정도를 측정하는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각각 20점에서 100점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9이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0으로 높은 편이었다.

2) 부모의 감독 정도

박성수(1994)가 제안한 부모의 가정교육을 재는

항목 가운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생활과외 및 감독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김준호와 김은경(1995)의 부모의 감독 및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재구성하였다. 부모의 감독 정도에 관한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자녀가 외출하였을 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4개의 문항,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를 알아보는 3개의 문항, 그리고 평소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에 일정한 한계와 규칙을 정해주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며, 부모의 감독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에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감독 정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0이었다.

3) 가족의 불화 정도

김준호와 김은경(1995)의 가정분위기 척도 중에서 가족의 갈등여부에 대한 문항과 고성혜(1994)의 가족체계의 특성 척도 중에서 가족내 불화에 관한 문항을 참고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가족의 불화 정도에 관한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가족내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분위기와 부모간, 형제자매간 갈등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며, 가족의 불화 정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내에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부모간 혹은 형제자매간 갈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불화 정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4이었다.

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참고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년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회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8이었다.

5) 친구지향성

김준호(1993), 김준호와 김은경(1995)의 친구에 대해 관한 척도와 전병재(1991)의 친구관계에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참고로 하여 친구에 대한 지향성 척도를 구성하였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 청소년들이 갖는 친밀도 및 지향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는 내용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척도의 점수 범위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다. 친구에 대한 지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친구에 대해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며 그들의 견해 및 행동에 더 많이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8이었다.

6)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

전병재(1991)의 비행친구와의 노출정도를 알아보는 척도와 정유미와 김득성(1989)의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성향을 알아보는 척도를 참고로 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8개의 문제행동 항목을 설정하고, 전체 친구 중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았다. 각 문제행동 항목별로 그런 친구가 '없다'는 1점, '1/4정도'는 2점, '반정도'는 3점, '3/4정도'는 4점, '거의 다'는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척도의 점수 범위는 8점에서 40점까지이며,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에게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4였다.

7)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

범죄이론 및 비행이론에 기초하여 문제행동을 미리 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응답하도록 한 선행연구들

〈표 1〉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행동의 점수화

문제행동 유형		일시적 정도		중간 정도		상습적 정도	
		경험횟수	점수화	경험횟수	점수화	경험횟수	점수화
가벼운 문제행동	노래방·비디오방 출입	1개월에 1-3회	1	1개월에 4-7회	1	1개월에 8회	2
	허락없이 밤늦게 귀가 일부러 수업 빼먹기	1개월에 1-2회		1개월에 3-5회		1개월에 6회 이상	
	락카페·디스코장 출입 술집·단란주점 출입 흡연, 음주 학교·학원비 뺑뺑	1개월에 1회		1개월에 2-3회		1개월에 4회 이상	
	시험 중 부정행위 이유없이 친구 괴롭히기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1회		2-3회		4회 이상	
중정도 문제행동	공공기물 파손	1회	2	2-3회	3	4회이상	4
	무단조퇴·무단결석	1-3회		4-11회		12회이상	
	허락없이 외박, 가출 패싸움, 불량써클 가입	1-2회		3-5회		6회이상	
	돈뺏기·훔치기	1-2회		3-7회		8회이상	
심각한 문제행동	본드·부탄가스 흡입 환각제 복용	1회	3	3회	4	4회이상	5

(김두섭, 민수홍, 1996; 김준호, 1993; 박성수, 1994)의 문제행동 척도와 문제행동의 경중(김준호, 이동원, 1996; 민하영, 1991)과 경험횟수에 따라 점수화한 정유미와 김득성(1998)의 문제행동 척도를 토대로, 청소년기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유의선정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제행동 항목별로 최근 1년 이내에 그러한 문제행동을 해본 '경험이 없다'에 0점을 부여하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평균 경험횟수를 기록하게 하고, 문제행동의 경중과 경험빈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문제행동을 가벼운 문제행동, 중정도 문제행동, 심각한 문제행

동으로 나누고, 경험빈도를 일시적 정도, 중간 정도, 상습적 정도로 나누어 그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살펴본 자기보고식 연구들에서 문제행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때는 대개 중학교 시기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준호, 1993; 김준호, 김은경, 1995; 오익수, 박경애, 황순길, 1993).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음주나 흡연을 비롯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20*)

변수	집 단	빈도(%)	변수	집 단	빈도(%)
성별	남자	266(51.2)	가족형태	조부모+부모+자녀	42(8.1)
	여자	254(48.8)		부모+자녀	471(91.9)
아버지 연령	30대	25(5.6)	어머니 연령	30대	137(29.5)
	40대	397(87.4)		40대	321(69.2)
	50대	32(7.0)		50대	6(1.3)
아버지 교육수준	초졸	12(2.6)	어머니 교육수준	초졸	32(6.8)
	중졸	58(12.6)		중졸	98(21.0)
	고졸	285(61.8)		고졸	305(65.2)
	대졸	100(21.7)		대졸	32(6.8)
	대학원이상	6(1.3)		대학원이상	1(0.2)
아버지 직업	전문직	45(9.3)	어머니 직업	전문직	11(2.2)
	행정, 관리직	45(9.3)		행정관리직	3(0.6)
	사무직	115(23.9)		사무직	35(6.4)
	판매, 서비스직	136(28.2)		판매, 서비스직	110(20.2)
	생산직	115(23.9)		생산직	23(4.7)
	농어업	10(2.1)		전업주부	303(55.7)
	무직	16(3.3)		기타	4(0.8)
종교	없다	177(34.3)	가족원수	3명이하	80(15.5)
	기독교	196(38.0)		4명	302(58.5)
	천주교	65(12.6)		5명	98(19.0)
	불교	67(13.0)		6명이상	36(6.0)
	기타	11(2.1)		평균	4.17
상대적 생활수준	상	23(4.5)	학교성적	상	49(9.5)
	중상	103(20.0)		중상	153(29.7)
	중	341(66.3)		중	140(27.1)
	중하	43(8.4)		중하	148(28.7)
	하	4(0.8)		하	26(5.0)

* 변수마다 총응답자수에는 부분적인 무응답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한 여러 문제행동이 급증하며(김현숙, 1998; 오익수 외, 1993;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중학교 시기가 문제행동의 경험정도에서 개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반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인천 시내 소재의 한 중학교 3학년 2학년 87명(남학생 44명, 여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하여 본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실제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인천 시내 소재의 중학교 12개교에서 3학년 12개 학급의 학생들이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담당교사의 협조하에 연구자만 단독으로 교실에 입실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525부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기재된 5부를 제외하여,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는 총 520부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4. 자료분석 방법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고 전반적인 경향에서 성차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관련 특성과 문제행동 정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

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

1)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의 전반적 경향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평균 61.6점(범위 20-100점)이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평균 70.1점(범위 20-100점)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중간 수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1.78, p<.001$). 즉 중학생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 정도는 평균 36.7점(범위 10-50점)으로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감독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불화 정도는 평균 24.1점(범위 12-60점)으로 가족의 불화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의 경향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t=-1.86, p<.05$).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어머니와 좀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

<표 3>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

(N=520)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t값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	61.6	13.5	23- 97 (20-100)	-11.78***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	70.1	13.2	24-100 (20-100)	
부모의 감독 정도	36.7	6.7	16- 50 (10- 50)	
가족의 불화 정도	24.1	7.6	12- 52 (12- 60)	

***p<.001

<표 4> 성별에 따른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 변수들의 차이 검증

변 수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	남	247	62.0	12.4	.16
	여	234	61.8	14.5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	남	245	68.9	11.7	-1.86*
	여	235	71.2	14.6	
가족의 불화 정도	남	248	23.9	7.2	-.66
	여	241	24.4	8.0	
부모의 감독 정도	남	263	36.4	6.4	-1.09
	여	248	37.1	7.1	

*p<.05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관련 특성의 전반적 경향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평균 64.9점(범위 20-100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자기통제력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보다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다. 친구 지향성은 평균 42.7점(범위 12-6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는 평균 11.8점(범위 8-40점)으로 전반적으로 매

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는 친구들 중 각 항목별 문제행동을 경험한 친구의 비중을 측정해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와 같다. 각 항목별로 문제행동을 경험한 친구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문제행동을 경험한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에 출입하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는 77.1%, 음주나 흡연을 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는 각각 35.8%, 27.3%로 나타나 가벼운 문제행동을 경험한 친구는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단조퇴 및 무단결석을 한 친구가 있는 경우는 18.8%, 외박이나 가출은 18.1%, 패싸움이나 불량써클 가입은 6.9%로 나타나, 중간 수준 이상의 문제행동을 경험한 친구들에 노출된 정도는 가벼운 문제행동을 경험한 친구들에 노출된 정도보다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들의 자기통제력과 친구관련 특성이 성별

<표 5>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관련 특성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 (N=520)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자기통제력	64.9	9.2	34-95 (20-100)
친구 지향성	42.7	6.2	16-59 (12- 60)
문제행동 친구 노출정도	11.8	4.7	8-40 (8- 35)

<표 6>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

(N=520, 단위 : %)

문제행동 유형	없다	1/4정도	반정도	3/4정도	거의 다
노래방, 비디오방 출입	22.9	31.2	18.8	8.7	18.5
락카페, 단란주점 출입	81.0	12.5	3.5	1.3	1.7
음주	64.2	21.2	8.3	3.1	3.3
흡연	72.7	13.1	5.8	3.1	5.4
무단조퇴, 무단결석	81.2	13.5	2.7	1.0	1.7
허락없이 외박, 가출	81.9	12.7	2.3	1.2	1.9
본드, 가스 흡입	98.3	1.3	0.2	-	0.2
패싸움, 불량써클 가입	93.1	4.4	1.2	0.4	1.0

〈표 7〉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관련 특성 변수들의 차이 검증

변수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통제력	남	256	65.12	8.63	.57
	여	234	64.65	9.78	
문제행동 친구 노출 정도	남	266	9.18	3.90	.04
	여	253	9.16	3.91	
친구지향성	남	262	41.88	6.74	-3.25***
	여	250	43.64	5.44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친구지향성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t=-3.25, p<.001$).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조금 더 높은 친구지향성을 보였다.

3) 청소년 문제행동의 전반적인 경향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이는 문

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의 경향과 비슷하여, 가벼운 문제행동의 경험자가 가장 많았고 문제행동의 경험빈도별로는 일시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 출입에 관한 항목에서는, 락까페나 디스코장에 출입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6.2%, 술집이나 단란주점에 출입한 적이 있는 학생은 15.4%이었고, 범규정상 보호자없이 미성년자

〈표 8〉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행동 정도

(N=520, 단위 : %)

문제행동 유형	무경험	경험정도			
		일시적 정도	중간정도	상습적 정도	
가벼운 문제행동	노래방, 비디오방 출입	23.3	61.0	8.3	7.5
	락까페, 디스코장 출입	93.8	3.3	2.1	0.8
	술집, 단란주점 출입	84.6	7.7	5.8	1.9
	흡연	76.9	6.0	4.6	12.5
	음주	59.6	20.0	14.2	6.2
	허락없이 밤늦게 귀가	51.2	28.5	12.9	7.4
	일부러 수업 빼먹기	88.5	7.7	2.1	1.7
	학교, 학원비 빚당	65.0	21.5	10.4	3.1
	시험 중 부정행위	61.3	19.6	12.1	6.9
	이유없이 친구 괴롭히기	76.7	9.8	8.8	4.6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96.0	2.1	1.5	0.4
중정도 문제행동	공공기물 파손	81.7	8.5	6.7	3.1
	무단조퇴, 무단결석	90.2	7.3	1.3	1.2
	허락없이 외박	87.3	8.8	1.9	1.9
	가출	92.7	4.6	1.9	0.8
	패싸움	92.9	6.5	0.6	-
	불량씨를 가입	98.1	1.7	0.2	-
	돈뺏기, 훔치기	80.2	10.2	6.7	2.9
심각한 문제행동	본드, 부탄가스 흡입	99.2	0.2	0.4	0.2
	환각제 복용	99.8	0.2	-	-

〈표 9〉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 검증

(N=520)

변 수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문제행동 정도	남	266	6.68	8.04	.71
	여	254	6.18	8.19	

가 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노래방이나 비디오 방에 혼자 또는 친구들과끼리 출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76.7%였다. 흡연은 전체 응답자의 23.1%가 경험하였고, 경험자의 54%가 상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정도 이상의 문제행동 경험정도는 가벼운 문제행동에 비해 경험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전체응답 학생 중 7.3%가 가출경험이 있고, 부모의 허락없이 외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2.7%, 무단조퇴나 무단 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은 9.8%였으며, 돈을 뺏거나 훔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19.8%, 공공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는 학생은 18.3%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문제행동 경험정도에서 남녀 학생간의 차이는 〈표 9〉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인과모형 분석

전체 표본의 인과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10〉 참조),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는 최종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상관관계가 .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인과모형의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사이의 상관관계가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을 경우 그만큼 문제행동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편적인 통념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문제행동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청소년 자신의 문제행동도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가설 3-2를 지지하는 것인 동시에, 문제행동을 많이 경험하게 될수록 점점 더 유사한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접하게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경향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의 문제행동 경험 양상과 거의 유사하다는 선행 연구들(김동일, 1993; 오미경, 1998; 정유미·김득성, 1998)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0〉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간의 상관관계

(N=520)

변 수	1	2	3	4	5	6	7	8
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1.00							
2.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38***	1.00						
3. 부모의 감독정도	.18***	.22***	1.00					
4. 가족의 불화정도	-.54***	-.45***	-.23***	1.00				
5. 자기통제력	.30***	.19***	.15***	-.27***	1.00			
6. 친구 지향성	-.13**	-.11*	.18***	.06	-.17***	1.00		
7. 문제행동 친구 노출	-.20***	-.12**	-.04	.17***	-.32***	.22***	1.00	
8. 문제행동 정도	-.23***	-.22***	-.10**	.23***	-.39***	.25***	.72***	1.00

*p<.05 **p<.01 ***p<.001

1)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관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기초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은 1차 회귀분석 결과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만을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의 문제행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이었으며, 이 변인들에 의해서 문제행동 총분산의 21%가 설명되었다.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자기통제력이 중학생의 문제행동 정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beta = -.34$, $p < .001$), 이어 친구지향성($\beta = .18$, $p < .00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beta = -.14$, $p < .001$) 순이었다.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 가족의 불화 정도였고, 이 회귀식은 11%의 설명력을 가졌다.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beta = .23$, $p < .001$), 가족의 불화 정도($\beta = -.15$, $p < .01$) 순이었다. 친구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 부모의 감독 정도, 자기통제력으로 나타났고, 이들 세가지 예

측변인이 친구지향성 총분산의 9%를 설명하였다. 친구지향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부모의 감독 정도($\beta = .23$, $p < .00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기통제력($\beta = -.18$, $p < .00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beta = -.12$, $p < .0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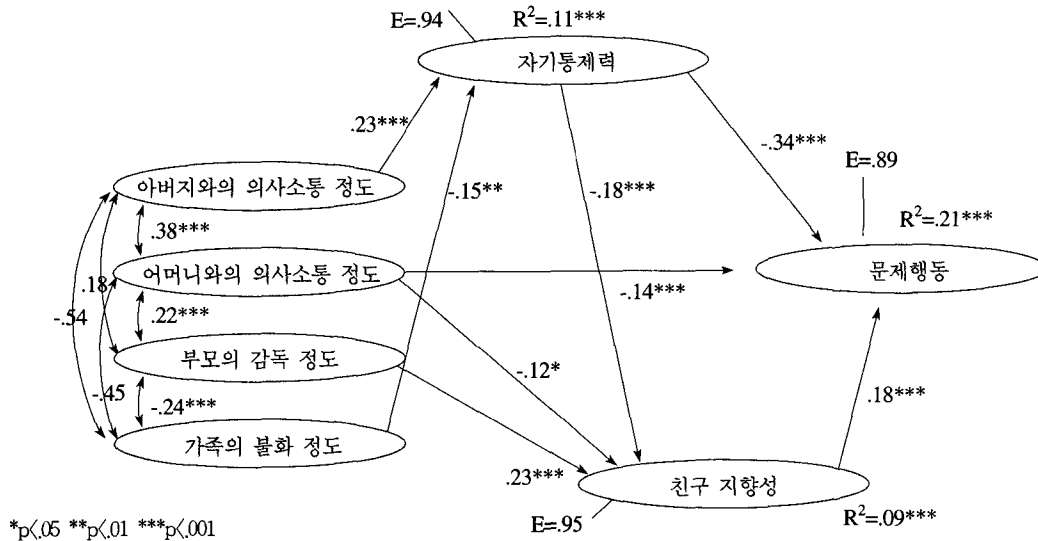
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가설적 인과모형을 수정한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12>은 수정된 인과모형에서 각 독립변인들이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에 따른 인과적 효과를 구하고, 가족의 심리적 환경 변인들의 비인과적 상관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비인과적 효과를 구해 총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중학생의 문제행동 정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총인과효과 크기는 자기통제력(-.34)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친구 지향성(.18),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16),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09), 가족의 불화 정도(.05), 부모의 감독 정도(.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인과적인 효과까지 포함한 문제행동에 대한 각 변수들의 총효과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37)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19), 친구 지

<표 11>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수정된 모형의 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 ²
자기통제력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	.16	.23***	.11***
	가족의 불화 정도	-.18	-.15**	
	절편(constant)	59.72		
친구지향성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	-.06	-.12*	.09***
	부모의 감독 정도	.21	.23***	
	자기통제력	-.12	-.18***	
	절편(constant)	46.84		
문제행동 정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	-.08	-.14***	.21***
	자기통제력	-.29	-.34***	
	친구지향성	.24	.18***	
	절편(constant)	20.76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수정된 인과모형

향성(.18),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17), 가족의 불화 정도(.15), 부모의 감독 정도(-.02) 순으로 나타났다. 총효과와 총인과효과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친구지향성보다 문제행동 정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부모의 감독 정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정적인 효과가 부적인 효과로 상쇄된다는 것이다.

위의 수정된 경로모형과 총효과 분해결과에 따라 각 변수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

기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 = .23$),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친구지향성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09). 따라서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친구지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 = -.12$), 이를 매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02). 그러나 친구지향성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ta = -.14$).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총인과효과 중 간접효과의 비율은 약 13%에 불과

〈표 12〉 문제행동 관련변수들의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및 총효과

관련 변수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	-	-.09	-.09	-.08	-.17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	-.14	-.02	-.16	-.03	-.19
부모의 감독 정도	-	.04	.04	-.06	-.02
가족의 불화 정도	-	.05	.05	.10	.15
자기통제력	-.34	-.03	-.37	-	-.37
친구지향성	.18	-	.18	-	.18

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는 직접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부모의 감독 정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친구지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23$), 친구지향성의 중재효과에 의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04). 그러나 다른 가족의 심리적 환경 특성 변수들과의 비인과적 상관관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02). 따라서 가설 1-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족의 불화 정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기통제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15$),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친구지향성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05). 따라서 가설 1-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자기통제력은 친구지향성($\beta=-.18$)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변수들의 매개효과에 의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03). 그러나 친구지향성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자기통제력은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beta=-.34$). 자기통제력의 문제행동 정도에 대한 총인과효과 중 간접효과와 비율은 약 8%로, 자기통제력의 문제행동 정도에 대한 효과는 직접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완전히 지지되었다.

친구지향성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beta=.18$). 즉, 친구지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1은 완전히 지지되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 가족의 불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 특성, 자기통제력, 친구관련 특성, 그리고 중학생

들이 경험한 문제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제 변인들이 남녀 중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가족의 심리적 환경 특성,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관련 특성, 그리고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생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좀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또한 중학생들은 남녀 학생 모두가 부모의 감독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문제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친구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아버지와 의사소통은 자기통제력을 통해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상이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감독 정도에 대해 남녀 학생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 시기의 부모들이 남녀 학생 공통적으로 자녀의 집밖에서의 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청소년기의 특성인 부모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추구에 대한 욕구(유안진, 1992)와 관련지어 볼 때 중학생들이 부모의 감독 수준을 과대평가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둘째, 중학생들의 전체적인 문제행동 경험정도나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에서는 남녀학생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 선행연구들(김준호, 김은경, 1995; 오미경, 1998)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아들보다는 딸에게 좀더 많은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녀간에 자기통제력이나

문제행동 친구와의 접촉 정도, 나아가 문제행동 경험정도에서도 성차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 정도를 비롯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에서 성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문제행동 경험정도나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른 시각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의 불일치를 연령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수용시설원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기와는 경험빈도나 심각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남녀학생들은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족이나 학교에서, 혹은 대중매체나 친구들을 통해서 문제행동에 대한 상이한 압력과 통제를 받게 되므로(김준호, 김은경, 1995; 오미경, 1998),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의 성차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중학생들의 문제행동 정도나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친구에 대한 노출 정도는 성차보다는 개인차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정도와 자기통제력은 문제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적인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친구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인 효과를 가진다. 또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불화 정도는 문제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부적인 영향을, 가족의 불화 정도는 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부모의 감독 정도는 문제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않지만, 친구지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친구지향성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은 중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적지만 자기통제력과 친구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문제행동을 다룸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불화는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통제력은 중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인성발달 및 사회적응기술 개발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올바른 문제해결방법이나 대인관계기술 등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다른 경로를 통해 중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와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 자녀의 친구지향성 수준에 따라서 문제행동에 대해 상이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과 변인들간의 상호작용 및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정책을 세우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가족관련 특성, 개인특성, 친구관련 특성 등 다양한 요인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별 청소년의 경험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인천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문항을 구성하고 점수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경중 및 경험빈도를 보다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합의된 문제행동 척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최근의 경향을 살펴볼 때 다양한 문제행동을 포함시킨 척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인과관계는 선행연구와

문제행동 관련이론들을 중심으로 가설을 세우고 인과모형을 구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행동이나 친구 지향성, 자기통제력 등은 또다시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에 피드백 효과를 나타내거나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는 문제행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으므로, 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나 인과모형의 영향력을 청소년의 모든 문제행동에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학생을 조사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행동의 빈도나 심각도가 높지 않은 일반적인 학생들의 가벼운 수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 관계를 분석한다는 본 조사의 목적과 연관된 것이므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과 자기통제력, 친구관련 특성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간접적인 영향력을 밝히고 인과관계를 가정함으로써, 가족의 심리적 환경특성이 자기통제력이나 친구관련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가 이후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룸에 있어서 개인, 가족 및 친구관련 특성 등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녀의 자기통제력 및 인성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나 부모의 감독, 가족내 불화가 청소년의 친구관계 및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하고, 보다 바람직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조성 노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성혜(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 청소년이 겪고 있는 가족내 문제의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구순주, 최보가(1996).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107-120.
- 구분용, 구혜영, 이명우(1995). 청소년의 빛나간 행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박성수 외 4인 공연구. *빛나간 아이들의 세계*.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10.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31-51.
- 권혜진, 윤종희(1992).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4(1), 167-177.
- 김남성(1995).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동일(1993). 청소년 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순옥(1995).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6), 1-10.
- 김준호(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이동원(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은(1998).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래(1985).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영향과 사회적 기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성호(1992). 청소년 비행의 개관. *청소년 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15-131.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

- 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금희(198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2.
-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수(1994).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분석.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영애, 정옥분(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321-339.
- 오미경(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09-123.
- 오미경(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익수, 박경애, 황순길(1993). 청소년 흡연행동: 습관형성과정, 실태, 대책.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5.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안진(1992). 인간발달신강. 서울: 문음사.
- 유혜경(1986).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덕중(1989). 소년 집단비행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범죄연구, 제7편, 151-172.
- 이경주, 신효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 전병재(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 낙인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유미,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지광준(1992). 청소년 범죄와 비행-조기에측법을 중심으로. 서울: 삼신각.
- 청소년문제연구소(1989). 부모와 지식간의 관계를 통해서 본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서울 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문제연구소.
-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 147-160.
- 최외선, 백양희, 이미옥(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7-40.
- 최선남, 최외선(1995). 가족환경 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31-42.
- 표갑수(1986). 청소년비행원인이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한국가족학회(1993). 가족학. 춘천: 하우, 249-283.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69-79.
- Barnes, G. M. & Farrell, M.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63-776.
- Barnes, G. M. & Farrell, M. P. (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Barnes, G. M., Farrell, M. P., & Cairns, A. (1986). Parental Socialization Factors and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1), 27-36.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MN: University of Minnesota.
- Gecas, V. & Seff, M. (1990). Families and Adolescents :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41-958.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1992). *Antisocial Boys :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ORF Castalia.
- Pruitt, B. E. & Kingery, P. M. (1991). Peer Influence and Drug Use Among Adolescents in Rural Areas. *Journal of Drug Education*, 21, 2-39.
- Robertson, J. F. & Simons, R. L. (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25-137.
- Shagle, S. C. & Barber, B.K. (1993).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964-974.
- Snyder, J. J. & Patterson, G. (1987). Family Intera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In H. C. Quay(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Y.: Wiley, 216-243.
- Sutherland, E. H. & Cressey, D. R. (1978). *Criminology*. 10th ed. Philadelphia : Lippincott.